

# 이탈리아 트랜스아방가르드 작품에 나타난 장식적 요소연구

## A Study of interior constituents that appear trans avant-garde works in Italy

정종환\* / Cheong, Jong-Hwan

### Abstract

Art of today is expressed in various images incorporated in industrial development and visible in industrial parks, modern cities. Avant garde art and modernism brought abstract and conceptual art into conflict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y absorbed elements of each other and grew into post modernism, which emerged in the 1960s and is still current. The avant garde challenged what was lofty and sometimes opposed modernism and sometimes fed it in cycles until post modernism was established. "Trans avant garde", which, unlike modernism asserted individual expression, also appeared in the 1970s. Trans avant garde is spiritual art in which the artist's conversation with his soul returns. This study examines the readjustments the trans avant garde is making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dominant ethos of different values and offers the world art with important spiritual beauty. Trans avant garde art takes many forms, from thing to huge, which are manifested every where in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and everyday life.

키워드 : 이탈리아미술, 모더니즘, 트랜스아방가르드, 상징

## 1. 서론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잘 발달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다 더 편리하고 멋있는 생활을 꿈꾼다. 현재는 물론 미래의 꿈을 실현 시켜 주는 과학 문명의 발전이 마치 예술로 비교, 표현되기도 하는 현실에서 첨단과학 기술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도심의 거리와 빌딩에는 영상매체를 비롯한 대형 사진이나 그림이 전시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또 미래의 윤택한 인간 생활을 위한 노력은 우리 일의 형태와 행동 배경은 물론 인간성과 예술철학마저도 바꿔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 생활을 위한 재료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현재보다 기능과 미관상으로 보다 나은 것을 개발하려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미래로만 향한 우리 상황이 새로운 발명과 개발로 항상 신선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몰두가 현재의 인간과 자연 및 예술철학 등 기초학문의 본질을 망각하고 무조건 앞서 나가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멀티플의 의식은 성격이 다른 많은 분야들이 서로의 유사 또는 공

유 점을 찾아 융합하게 만들고 있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모습의 거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단편을 제작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한다. 본고는 70년대 초 산업의 조류를 타고 거대한 물결을 예고했던 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중반이후의 이탈리아 트랜스아방가르드는 그 출현 시기가 비슷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술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격적으로 파악되며 현대 미학의 향방을 진단하는데 큰 의미를 던져준다.

중세 르네상스 이후부터 현대 미술까지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예술에서 자연과학에 충실했던 것과 합리적 사고와 또 이에 대한 반항과 논리의 파괴와 인간의 절대자유와 예술허무주의의 사실 등이 서로 대립하여 왔음을 보게된다. 현재는 戰後 다다 운동과 추상미술, 개념미술과 과거 계몽주의 이후부터 형성되었던 모더니즘 미술이 서로의 不協 속에서도 공존하며 현재의 예술사고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트랜스 아방가르드는 예술이 미래에 대한 확산적 개념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을 찾아가는, 즉 자존적이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예술에서 돌이켜 본질을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보다 과거의 평안을 담보할 수 있는 점이 있어 오늘의 미적 응용에 중요한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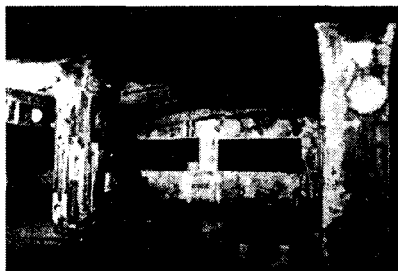
\* 정희원, 순천대학교 만화예술학과 조교수

예술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수록 그 환경이 윤택하다고 전제하면서 필자는 예술의 본질을 돌이키려는 트랜스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하여 다음 의 세 가지 사항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며 주거 환경에 어떤 장식적 요소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트랜스아방가르드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생성의 배경으로 그들이 그리워했던 민족原流의 신화와 고대의 중세의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근대에 형성되었던 모더니즘 미술과 아방가르드의 영향에 대하여도 그 근거를 밝혀 보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활동중인 주요작가와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이 트랜스아방가르드가 시사하는 예술 작품과 그 형이상학의 정신이 어떤 가치로 생활에 적용되는지는 것이다.

## 2. 트랜스아방가르드의 배경

### 2.1. 이탈리아를 만든 예술

이탈리아가 훌륭한 예술을 가지게 된 것은 약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아시아 계의 예술적 소양을 지닌 에트루니아(Etrurians)조상과 지중해의 크레타와 그리스의 지리적 아름다움과 일찍이 문명이 싹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발달한 문화와 잦은 접촉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었다. 소위 의지의 예술, 진의의 예술, 영웅의 예술, 곧 프로메테우스의 예술의 로마예술은 서양예술의 척도로서 역할을 하였다. 로마 미술을 말하는 데에는 이탈리아 서북부에서 중부로 이주한 에트루리아인을 빼고는 할 수 없다.<sup>1)</sup> 그들은 특히 분묘에 지극하였고 지하 방의 위를 원추형으로 하여 마치 주거를 옮겨 놓은 것처럼 하였는데, <그림1><sup>2)</sup> 분묘를 포함한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벽화를 그렸다. 분묘에 그려진 그림의 내용은 종교나 내세



<그림 1> “부조의 묘” B.C.3세기 체르벤테리

의 내용이 아닌 무용, 수렵, 동물, 화초, 가족 등 일상생활이나 신화가 주로 소재가 되었다. 그들은 벽이 마르기 전에 안료를 칠해 함께 마르게 하는 프레스코벽화의 제작 방식을 사용했고 후에는 그

림의 내용도 전쟁, 사냥, 음악사 등 다양해지고 표현 재료도 모

1)기원전8세기경 소아시아에서 해로로 이탈리아 서북해안에 도착해서 내륙으로 이주한 민족으로 내륙에서 전성기를 맞는다. 그들은 아치(arch)형 건축을 전파했다. 예술철학(상), 양회석, 초판, 자유문고, 서울, 1980, pp.344-353  
2)그리스의 신전에 있는 부조와는 전연 다른 생활도구를 위시하여 동물 무기와 같은 것들을 부조하고 있다, 아치형의 지붕과 원형기둥이 보인다. 앞의 책, p.346

자이크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에트루리아인은 동방의 아치형 기법으로 복잡한 건축물을 잘 지었고 크레타와 그리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낙천적이며 자연스러운 미를 확대해 가게 된다. 로마가 세계의 지배권을 확립한 기원전 27년 이후 수차례의 전쟁과 교류로 그리스의 건축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로마는 개인 숭배의 사상과 실용성으로 實거주에 효율적인 건축물과 기념물을 만들기 시작했다.<sup>3)</sup> 알렉산드로스 대제 이후 확장된 그리스문화가 로마에 접촉되면서 초기 그리스교의 교의가 중세미술의 근거를 만들기 시작했고 5세기경부터 천년에 걸쳐 기독교 미술이 정착하게 되었다. 비잔틴 미술<sup>4)</sup>의 화려한 모자이크와 또한 프레스코벽화와 함께 로마의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했던 로마네스크 미술<sup>5)</sup>과 중세의 꽃이라고 하는 스테인드글래스와 여인의 신비와 경건함을 지닌 고딕미술<sup>6)</sup>을 탄생시킨 주역이 로마미술이었다. 중세의 前半에 이러한 미술사적 전개가 지속적으로 이탈리아를 근간으로 전개된 사실이 그들에게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으며, 오늘날 이탈리아의 현대 미술에 다시금 새로운 에너지로 환생을 희구하게 되는 자연스런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2. 르네상스미술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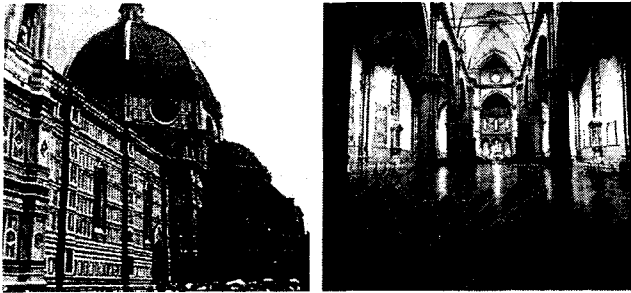
오늘날 이탈리아 트랜스 아방가르드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큰 근원은 15C경의 르네상스미술에 있다. 당시 이탈리아인은 고대의 가장 정통적인 계승자라는 자각 아래 타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에 대한 동경과 향수에 빠져서 조상의 위업을 회상하는 민족적 자부심과 그 위업을 재현할 후예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운동을 떠나갔다.<sup>7)</sup> 그로 인하여 건축은 중세 비잔틴이나 고딕과 달리 고대 로마의 건축구조와 <그림2> 화려한 고대 그리스의 양식을 부활시켜 만들었다.<sup>8)</sup> 팔라



<그림 2> ‘판테온’ 고대로마건축물.

3)세계지배권 확립으로 제국주의의 국위의 양양으로서 개인숭배 사상이 생겨난 개인기념물을 건조, 판테온, 콜로세움, 디오클레티안공동욕장, 카르칼라공동욕장, 콘스탄티누스의 3층기념문, 트리아누스의 기념주. 예술철학(上), 양회석, 초판, 자유문고, 서울, 1980, pp.365-373.  
4)헬레니즘이후 그 전통에 고대 아시아의 전통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영향 등을 더하고, 신흥 그리스교를 정신적 기초로 새로운 에너지로 번창하면서 10세기가 지속되었다, 앞의 책 pp.399-420  
5)종교적 감정의 표현을 의도한 것, 앞의 책, pp.464-471.  
6)12-13C 경 그리스로마예술에 조소적이던 고트(Goths)족을 일컬어 만든 말이나 고트족과 직접관계는 없다. 그러나 로마네스크에서 발전한 양식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앞의 책, pp.491-492.  
7)문예부흥의 대업은 세계의 발견과 인간의 발견이다. 시먼즈(John Addington Symonds 1840~93). / 디오니소스의 예술과 르네상스, 앞의 책, pp.99-107.  
8)건축가 알베르티는 팔라초·루첼라이(Palazzo Rucellai)를 장식하면서 고대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식의 기둥을 쌓

조 피티(Pallazzo Pitti), 산프란체스코성당, 산타마리아델피오르성당<그림 3> 등은 고대로마의 육중한 외부와 우아한 아치



<그림 3> Santa Maria del Fiore 성당과 내부

와 원형바닥의 내부 미를 재현하면서 저마다 개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림에 있어서도 르네상스의 3대 거장<sup>9)</sup>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철저한 사실주의적 자연 묘사와 과학을 근거로 개성적이면서 합리적인 표현을 하였다.

르네상스에 대하여 프랑스의 역사가인 미슐레<sup>10)</sup>는 도시의 경제적 욕망과 군주의 민족적 욕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딕 후기와 중세와의 차이는 다음의 다섯 가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보편적인 카톨릭 세계에서 국민국가로, 둘째 전체에서 개인으로, 셋째 종교에서 세속으로, 넷째 신에서 인간으로, 다섯째 신학에서 과학으로 변화한 것이라는 데에 그 의미를 찾았다.

현대 이탈리아 미술에서 르네상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탈리아인들은 고대를 먼 과거에 잃어버린 유산으로 파악한, 역사적 이념을 통하여 보았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이탈리아인은 자기 자신과 고대인 사이에 ‘천년의 암흑시대’라는 개념을 삽입함으로써 고전 고대의 세계를 떠나면 과거로 보고 취급한 점이며, 이와 같은 르네상스의 인식은 당연한 귀결로 부정적인 중세개념을 잉태케 하였고, 이러한 그들의 의식은 세계와 자연주의와 인본주의의 발전을 통하여 고대의 재흥에 있었다. 둘째는 여러 가지의 양식과 기법이 반의적 성격을 띠면서도 과거와 현재의 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며 전승적 발전을 하고있다는 점이다.

### 2.3. 戰後 모더니즘의 영향

전후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다다(Dada)운동<sup>11)</sup>과 초현실주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가져다 준 반정치적인 인간성 회복에 있었다. 다다는 자연에 인간의 순응이라는 것을 표

아울러 고대건축미를 아낌없이 살리고 있다. 예술철학(中권), 양희석, 자유문고, 초판, 서울, 1980, p.19

9)마켈란젤로/레오나르도다빈치/라파엘로

10)미슐레 (Michelet, Jules)프랑스역사가 -앞의 책

11)인간과 전쟁의 현실 속에 기존에 회의를 가졌던 발상적 현상. 앞의 책, pp.343-345.

방하였고 이에 따라 반도덕, 반윤리, 반예술 운동의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예술의 다다는 예술을 더욱 새로운 개념의 예술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후에 이 정신은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즉 ‘전위’<sup>12)</sup>와 맥을 같이하게 된다. 전후 초현실과 추상미술의 전개는 여기에서 기인되면 후에 순수추상미술에는 다다이스트, 바우하우스, 데·스틸, 큐비스트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 산업사회의 자본과 결부되면서 고상한 개념의 모더니즘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 즉 파괴와 건설의 상반된 두 개념은 저변에서 서로 공유, 공존<sup>13)</sup>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개념예술(Conceptual Art)<sup>14)</sup>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 3. 이탈리아 트랜스아방가르드

### 3.1. 트랜스아방가르드의 형성

1970대말 미니멀 아트의 추상이 한계를 의식하게 된 것은 모더니즘의 규범적이고 제한된 개념에 대하여 누적된 불만도 있었거니와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욕구가 회화에 대한 鄉愁적 동경에 의해서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예술에 있어서 발전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놓고도 미술사적인 의미를 획득하면서, 지난 모더니즘의 폐쇄성과 아방가르드의 위기 속에서 실종된 정신적인 자유를 되찾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이탈리아 평론가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Achile Bnito Oliva)가 제안한 ‘트랜스 아방가르드’라는 말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모델화에 빠졌던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를 넘어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sup>15)</sup>

이러한 새 미술의 경향은 유럽을 진원지로 세계적으로 퍼져 갔는데 이탈리아에서는 트랜스아방가르드, 프랑스의 신구상회화, 독일에선 신표현주의, 미국에선 뉴페인팅으로 각각 불려졌다. 이것은 예술이 수직·예속적 국제관이 아니라 범세계적이고 각국의 개별적 시각을 강조하는 수평적 국제 관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어, 전형적인 자국의 문화를 강조하고 의식의 해방과 자유로운 감성을 바탕으로 회화적 이미지와 표현성을 회복하고 구체적인 형상을 미술의 핵심적인 요소로 재 부각시키게 되었다.

12)매우 진보적인 예술, 예술가를 지칭하는 문화적 메타포로 해석함. 현대 미술의 쟁점, 서성록, 2판, 재원출판사, 서울, 1997. p.88

13)모더니즘은 공적인 문화 내지 문화적 장치들의 전진 속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앞서가는 미술을 계속적으로 공적인 문화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한다. 반면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배치에 연료를 공급하는 에너지이거나 그것에 맞서거나 뿌리치고 달아나는 힘이다. 상황과 인식, 이영철, 초판, 시각과언어, 서울, 1993, p.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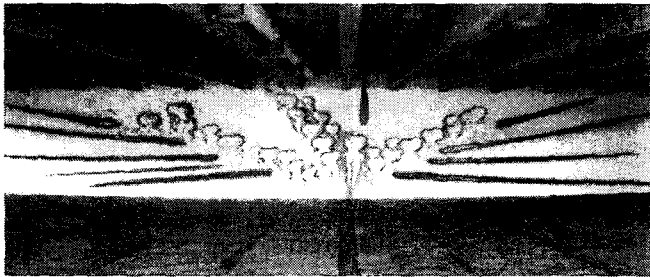
14)예술철학(下권), 양희석, 초판, 자유문고, 서울, 1981, p.518

15)http://www.bbizzim.com, 공개자료실, 80년대 신표현주의와 트랜스아방가르드, 이준, 2002, pp.2-3.

### 3.2. 작가와 작품

르네상스에서 부활의 의미는 화려했던 고대로마와 종교에 대한 인본주의적 시각과 또 자연과학과 합리적 사고로 전개·부흥시킨 것이었다면 트랜스 아방가르드도 이에 맥을 같이 한다. 전반적으로 이들의 분위기는 고전적 신화와 역사, 철학, 문학 등 미술 외적인 요소로부터 시적 영감을 찾아내고, 기법적으로도 과거 그들의 양식이었던 고대 기독교로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적인 양식과 가깝게는 미래파나 형이상학적 미술,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sup>16)</sup>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문화적 유산으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하고 있다.

그들의 경향과 작품의 내용을 보면 첫째 엔조쿠키<sup>17)</sup>는 그의 작품 저변엔 고향 주변의 바다와 산들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과 체험이 자신과 직접 또는 상상적으로 관련을 지으며 바다, 항구, 선박, 언덕 위의 묘지, 십자가, 해골 등이 그려지게 되고, 또 전설적인 신화와 이어지는 시간의 표현과 출생의 근원을 민족설화와 결부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 상징의 의미로 재



<그림 5> 무제, 회벽에 아마오일채색, & 철판, 333 X 2061cm.

생하려고 했다. 이러한 영적 세계의 표현은 풍성하고도 과도한 모순과 또 애매한 표현과 극단의 작고 단순함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느끼는 것은 시각의 느낌이 본질적인 것을 우선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의 작품재료는 기본적인 캔버스의 페인팅은 물론이고 손바닥보다도 작은 종이 위의 드로잉이나 스틸강판과 거대한 프라스틱, 타일, 돌과 나뭇가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의 다양한 크기의 작품은 상징성이 강한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건물의 내벽에 바로 그려지거나<그림5><sup>18)</sup> 외부에 조형물로 설치되곤 한다.<그림6><sup>19)</sup><그림7><sup>20)</sup> 엔조 쿠키의 장식적 요소는 작품의 크기와 재료로도 조절이 되는데 손가락 만한 그림의 액자나 인간생명의 근원적 표상이나 시간의 상징인 무쇠바퀴 같은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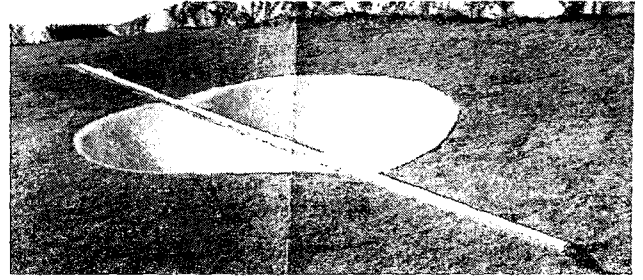
16)이탈리아 작가들이 표명했던 것으로 전통적인 미술 재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버려진 물품이나 흙, 나뭇잎 등 재료사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어떤 것에 매개되지 않은, 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 및 감수성을 바탕으로 무언가 이루어내려 한다.-주재환 작품집 「이 유쾌한 씨를 보라」에서.

17)Enzo Cucchi, 1949년 마르키스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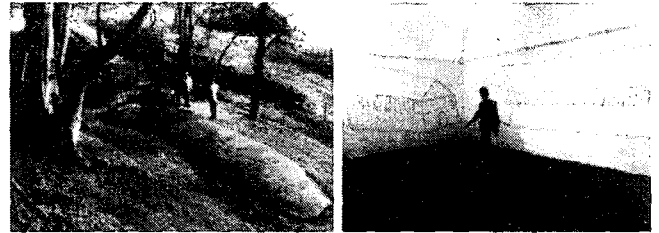
18)엔조쿠키 카탈록3, 이탈리아 프라토 현대미술관 발행, 1989. p.191.

19)앞의 책. pp.56-57

20)앞의 책 p.169, p.91.



<그림 6> 정원의 분수, 1988, 대리석, 모자이크, 시멘트, 물, 250 X 60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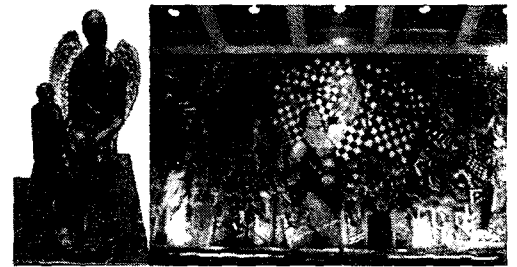


<그림 7> 정원에 설치된 작품과 실내에 만들어진 작품, 엔조 쿠키, 1989.

입체적 구조물로 실내의 한쪽에서 과거의 부활을 일깨우도록 디스플레이가 되기도 한다.

둘째 산드로 키아<sup>21)</sup>는 70년대 로마에서 자리잡기 전에 인도, 터키, 미국,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였다. 그의 작품은 르네상스적 전통의 부활과 고전미의 탐구로 그림의 내용엔 우정과 에로스의 로맨틱이 있었고,<그림8> 또 과거 제국의 욕망과 불, 냉쿨, 나뭇잎, 천사, 악마 등이 상징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바로크 적인 화려한 색채와 필치로 에펠드프리제<sup>22)</sup> 환상을 서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80년대 초의 영향으로 독일을 연상시키는 작품과 이후 미국과 이탈리아를 넘나들며 고대 과거 힘

의 역사를 상징적인 내용으로 하여 거대한 실내의 벽면을 장식하기도 하는 등 많은 작품을 하였다.<sup>23)</sup>



<그림 8> 산드로 키아, 天使상, 無題 실내벽화

셋째 프란체스코 클레멘테<sup>24)</sup>는 70년대 초반 요셉보이스를 만나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sup>25)</sup> 73년 이후 매년 인도 여행을 통해 신비한 세습적 기술의 전수와 함께, 동서양의 다문화적인

21)Sandro chia 1946년 프로렌스 이방인적 향수를 표현.

22)지금은 이방인적 鄉愁의 의미로 해석함.

23)이탈리아, From. GALLERIA FABJBASAGLIA Art Dieter Honisch.

24)Francesco Clemente 1952년 Naples 태생, 심미적 다문화 이미지 차용.

25)<<http://www.artchive.com/artchive/B/beuys.html>>. - From "Art 20: The Thames and Hudson Multimedia Dictionary of Modern Art CD-ROM".

이미지를 차용, 대조하면서 욕망, 꿈, 자아, 또 신체에 대한 탐구 등 경이로운 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작품으로 옮겼다<그림9>.<sup>26)</sup> 보이소와의 실험예술을 할 때는 가상 세계의 색채와 음률과 오브제에 대하여 환각적인 표현을 하였고, 또한 비극적 장면과 아이러니한 자화상들을 미묘하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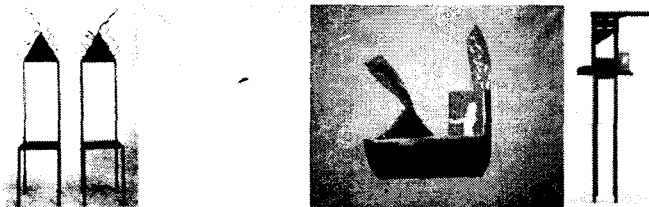


<그림 9> 클레멘트 / 인도이미지, 내면과외면

시키고, 살바드로 달리의 초현실적 모습이나 고갱의 영향을 시사한 원시적 그림과 신체적 디스플레이의

표현을 작품화하였다.<sup>27)</sup>

넷째 에네스토 타타피오레<sup>28)</sup>는 예술가인 아버지와 공학자인 형제들 사이에서 일찍 화가로서 그림을 시작 할 수 있었고, 또 약학과 의학에 관심은 그를 정신과의사로 만들었고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는 과거 역사적 큰 사건들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프랑스 혁명은 예술가의 도덕적 유토피아적 세계를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Marie Isidore Robespierre)를 통해 표출하는데 그것은 선과 공포의 이미지를 함께 주기도 하였다.<sup>29)</sup> 그의 망상적 유연한 표현은 한 사건을 격정적 현상으로 이끌며 창조와 파괴, 연민과 경악을 동시에 주고 있는데, 그의 상징적 요소들은 혁명의 단두대와 낫, 청소용 빗자루, 차가운



<그림 10> 타타피오레, 프랑스혁명의 테마 : 아레주-설명

의자와 새벽을 알리는 닭과 음악의 모차르트와 에로틱 여자와 과거와의 시간을 넘나드는 로베스피에르의 비행기로 표현된다.<그림 10><sup>30)</sup> 그는 역사와 신화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힘

과 도덕과 자유에 관한 투쟁 같은 결심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sup>31)</sup>

끝으로 밸모 팔라디노<sup>32)</sup>는 그의 고향인 베네벤토 지방 및 이태리의 문화적 유산들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흔적들, 이를테면 고딕조각이나 베네벤토 성당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문양이나 조각들, 폼페이 벽화에 묘사된 로마의 수수께끼, 비잔틴 모자이크 등에서 많은 것을 채집하고 변형시켰다.<sup>33)</sup> 그래서 그는 해골이라든가 십자가, 가면, 동물,<그림11><sup>34)</sup> 비밀스러운 문양들이 신비롭게 펼쳐지고 있는 원형(archetype)의 세계를 등장시키고, 인간 내부의 심층에 깊이 잠들어 있는 감지하기 어려운 소리와 이미지 재현을 탐구하였다.<sup>35)</sup>

### 3.3 트랜스아방가르드의 의미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많은 발견과 발명으로 발전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항상 올바르



<그림 11> 밸모 팔라디노, 황금가면의말, 가면의내면

고 진리 또는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오늘의 급한 마음이 과거의 귀한 것을 많이 놓쳤다는 생각에 과거로 되돌아가 그것을 다시 찾겠다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트랜스아방가르드가 의미하는 것은 극도의 새로움에 대한 추구와 미에 대한 고상함으로 회화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이탈리아 작가들의 과거로 회귀 본능이 르네상스에 이어 오늘날에 다시 발동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고전의 재 표현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고전을 연상하게 하는 것과 자연과학과 현 심미적 상황이 고전적 기법이나 양식에 의해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위에 거론한 다섯 작가의 표명은 공통적으로 과거역사와 사건에 관계된 개인적 내면의 주체성 떠올리는 내용과, 회화의 재래기법이 지금에 와서 관객에게 회화적으로 더 적극적인 진실함을 보여주고 있

26)Map of What Is Effortless, 1978, Gouache on paper, 152 x 144 cm, 개인소장, / Inside, Outside, 1980, Gouache on nine sheets of handmade Pondicherry paper, joined by cotton strips 172 x 235 cm, Paul Maenz, Cologne.

27)<<http://www.artchive.com/artchive/G/gauguin.html>>  
<<http://www.amazon.com/exec/obidos/ASIN/0500100152/texasnetmuseumof>>

28)Ernesto Tatafiore, 화가, 설치미술작가, 정신과의사, 1943, Marigliano출생.  
<<http://www.ew-passau.de>><[http://www.galerie-levy.de/kdg\\_tatafiore.htm](http://www.galerie-levy.de/kdg_tatafiore.htm)>  
1980년 스위스 바젤 미술관 발행 에네스토 타타피오레 카탈록.

29)<[http://www.galerie-levy.de/kdg\\_tatafiore.htm](http://www.galerie-levy.de/kdg_tatafiore.htm)>

30)좌) "Robespierre 와 Danton " 철조, 1990, 185 x 56 x 40cm. 중좌)판화, M.Robespierre를 상징하는 비행기 <다른작품은 대작으로 벽면 전체에 부착함>,중우) M.Robespierre를 상징, 우)무제로 되어 있으나 단두대로서 프랑스혁명을 상징함.1995.

31)<[http://www.kunstnet.at/hilger/2000\\_04\\_25t.html](http://www.kunstnet.at/hilger/2000_04_25t.html)>오스트리아 국립 미술관 홈.

32)Mimmo Paladino 1948년 베네벤토(Benevento)출생.

<<http://www.venicedesignartgallery.com/artista.asp/artista=Mimmo+Paladino>>

33)<<http://www.bbizzim.com>, 공개자료실, 80년대 신표현주의와 트랜스아방가르드, 이준, 2002, p.4.

34)좌) Berliner Pendel 은 베르린인의 상징으로 해석, 1998, 미국공의 지적인 사람을 말(Hourse)로, 말머리의 황금가면을 통해 그리스문화와 연결하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은행 홈페이지에서.

[http://www.dresdner-bank.de/content/03\\_unternehmen/05\\_kultur\\_und\\_sport/04\\_kunstsammlung/04\\_pariser\\_platz/paris\\_1.html](http://www.dresdner-bank.de/content/03_unternehmen/05_kultur_und_sport/04_kunstsammlung/04_pariser_platz/paris_1.html)

35)<<http://www.bbizzim.com>, 공개자료실, 80년대 신표현주의와 트랜스아방가르드, 이준, 2002, pp.4-5.

는 것이며, 프레스코 벽화와 화려한 바로크의 색채와 문양, 기독교예술과 로마의 건축과, 피렌체의 르네상스, 태생의 원초성과 불운과 행운과 애정은 주된 주제로 등장했었다. 이것은 70년대 중반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일신하던 모더니즘에 반발하면서 회화 본질로의 회귀하는 의미였었는데 회화는 물론 다양한 예술에도 이 본질회귀의 파장이 이어졌고, 산업화 시대에 자연과 고전이 다방면에 재 응용되는 가치로 의미되고 있다.

#### 4. 결론

오늘날 미술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택한 것이 새로움에 대한 아방가르드적 부정과 모더니즘적 긍정으로 서로간에 충돌과 흡수로 혼합되면서, 주제상실과 다원적 객체가 복제성을 띠고 예술의 의미를 거대하게 하지만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이다. 스스로의 발전이 또 한 단계의 발전을 위해 본질을 벗어난다면 본질의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 보수적일지라도 본질이 본질을 지킬 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다는 논리로 트랜스 아방가르드를 의미, 해석하고, 지금까지 고찰한 이탈리아의 역사와 작가연구의 자료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로 현대 예술의 전반과 생활의 장식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정리 하고자 한다.

첫째 화려한 신화와 강건했던 고대에 대한 끝없는 회고로 언제까지나 현재에서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거나 또 과거가 현재를 끌어당기는 특이한 환경과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현재에도 당시의 상황과 패턴과 실화와 미적 요소가 항상 힘있게 유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작가들이 이를 그림이나 설계에 차용하고 장식적으로 만들어도 항상 새로운 에너지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균형과 구성의 절대조형과 바우하우스와 미니멀 아트 의 거대한 모더니즘 속에 묻힌 회화를 구출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기와 같은 내면적인 소재를 찾아 스스로 편안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르네상스때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적용 하던 것처럼 개인의 심미적이고 철학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고정되고 묵인 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있고, 기법도 새로운 것 없는 과거의 것으로 하여 회화의 자유를 찾고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들은 과거의 문화나 모두가 아는 큰 사건을 소재로 삼아서 그것을 회상하고 재밌는 공유의 상황을 연출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학교나 공공건물의 실내 벽화나 조형물들이 제작하여 지난날 화려했던 정신문화와 불운했던 사건을 유추할 수 있는 현장을 연출함으로써 회귀에 대한 위안을 상대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점이다.

누구의 것이라 할 것 없는 편리한 차용의 포스트모던 속의 우리는 내 작품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감추기도 쉽지만

사실은 주체의 상실이 더 많다. 물질문명의 찬란함이 예술로 대변되는 오늘의 예술가들은 누구나 왜소하지만 생활주변에 본질을 살피는 것과 그것을 장식하여 내면의 자존을 응시 할 줄 아는 이탈리아의 트랜스아방가르드는 작지만 오히려 큰 키를 떠올리게 한다.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1. 상황과 인식(주변문화와 한국현대미술), 이영철, 초판, 시각과언어 출판사, 서울, pp.133-190, 1993
2. Alain Jouffroy, Nouvelles Figurations en France, 프랑스의 신구상회화 최민, 초판, 열화당, 서울, p.23, 1982
3. 예술철학 (上), 양희석, 초판, 자유문고, 서울, pp.99-353, 1980
4. 예술철학 (中), 양희석, 초판, 자유문고, 서울, p.19, 1980
5. 예술철학 (下), 양희석, 초판, 자유문고, 서울, pp.141-547, 1981
6. 현대미술의 쟁점, 서성록, 초판, 도서출판계원, 서울, p.48, pp.186-192, 1997
7. Amon Barsel, Enzo Cucchi, MUSEO D' ARTE CONTEMPORANEA PRATO, Prato, pp.54-221, 1989
8. Cheong Jong Hwan, Zwischen Arte Povera und Arte Cifra Zeitgenossische Kunst in Itallen HSE, Braunschweig Diprom Referat, pp.10-15, 1989
9. <<http://www.bbizzim.com>> 공개자료실, 80년대 신표현주의와 트랜스 아방가르드, 이준, 2002, pp.2-5
10. <[http://www.kcaf.or.kr/hk4/fine\\_art/narrative/index.htm](http://www.kcaf.or.kr/hk4/fine_art/narrative/index.htm)>김혜경(문예진흥원 미술회관Fine Art Center 큐레이터)
11. <<http://www.amazon.com/exec/obidos/ASIN/0500100152/texasnetmuseumof>>
12. <<http://www.artchive.com/artchive/G/gauguin.html>>
13. <[http://www.galerie-levy.de/kdg\\_tatafiore.htm](http://www.galerie-levy.de/kdg_tatafiore.htm)>
14. <<http://www.sandrochia.com>> 산드로키아 홈페이지, 자료
15. <<http://www.ew-passau.de>>
16. <[http://www.galerie-levy.de/kdg\\_tatafiore.htm](http://www.galerie-levy.de/kdg_tatafiore.htm)>
17. <[http://www.kunstnet.at/hilger/2000\\_04\\_25t.html](http://www.kunstnet.at/hilger/2000_04_25t.html)> 오스트리아 국립 미술관 홈페이지
18. <<http://www.venicedesignartgallery.com/artista.asp/artista=Mimmo+Paladino>>